

## 가톨릭관동대 국제성모병원

### ▶ 제2회 호스피스완화의료 전문인력 표준교육



6월 7일~7월 12일(매주 목) 6주간 호스피스완화의료 전문인력 표준교육을 진행하였다. 의사 9명, 간호사 20명, 사회복지사 4명, 성직자 1명 총 34명이 교육을 이수하였다.

### ▶ 2018년 새 삶 가족(사별 가족) 모임



9월 28일, 11월 2일 제3, 4차 새 삶 가족 모임을 가졌다. 흰 장미 봉헌과 미술요법을 통해 고인을 기억하고 사별 가족들의 슬픔을 위로하였다. 또 미사를 함께 봉헌하며 새로운 삶을 다짐하는 시간이기도 했다.

### ▶ “던지면 복이 와요!” 추석 이벤트

9월 20일 추석을 맞이하여 전통게임을 통해 복(福)을 주고받으며 환자와 가족 간 추억을 쌓는 시간을 가졌다. 참여하는 모든 이가 즐거운 웃음과 함께 훈훈한 분위기로 진행되었다.

### ▶ 제6회 호스피스완화의료 주간 캠페인



10월 16일~10월 18일 “호스피스 사랑을 잇다”라는 주제로 호스피스 완화의료 주간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사진전을 기본으로 현악 4중주 연주, 포토존, 다도테라피, 켈리그라피, 퀴즈, 리플릿 및 기념품 증정 등을 통해 호스피스에 대한 홍보와 인식개선을 도모하는 시간이었고 많은 내원객이 참여해 작은 축제의 장이 되었다.

## 대구대학교 가정호스피스

### ▶ 추모, 사별가족모임



11월 12일 선종하신 9명의 가족 17명을 모시고 꽃화분, 초 봉헌과 추모 글 낭독으로 가족의 마음을 위로하고 연도를 드렸다. 병원사목3분의 신부님들이 집전하신 위령미사와 미니 하프연주로 가족을 위로하는 시간을 가져 가족들이 초대에 행복하고 고맙다고 하셨다.



### ▶ 소진 예방 피정



12월 10일~11일 밀양 맑은 하늘 피정의 집에서 8명 봉사자가 신부님 강의, 숲속에서의 십자가길 기도와 환우 돌봄 사례를 나누고 생활 성가를 들으며 묵상하고 미사와 더불어 더 나은 봉사를 하기위해 마음을 다졌다. 봉사자들이 하느님께 감사드리며 행복한 시간으로 힐링되었다며 앞으로도 피정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하였다.

## 부산성모병원

### ▶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성지순례 배티 성지



9월 17일 배티 성지를 순례하면서 성지의 역사와 신앙의 선조들의 고귀한 정신을 느끼며 호스피스 봉사 또한 현대사회에서 생명의 소중함과 고귀함을 돌보는 활동임을 되새기는 시간이 되었다. 또한 순례하는 시간 동안 자연을 접하면서 하느님이 주시는 일상의 선물에 감사하는 시간이 되었다.

▶추석 이벤트 : 송편 나누기 & 게임

9월 20일 추석의 넉넉함과 즐거움을 병상에서도 가지 고자 마련한 자리로 환자와 가족, 병동의 팀원들이 참여하는 게임(투호, 고리 던지기)을 하면서 모처럼 신체의 활력과 웃음, 추석 음식과 선물을 나누면서 풍요로운 한가위 기쁨을 누리는 시간이 되었다.

▶제9회 사진전



10월 22일~23일 완화의료주간에 전시되는 호스피스사진전은 올해로 9회째를 맞이하였다. 28점의 사진을 전시, 호스피스센터에서의 환자와 보호자들의 애뜻함과 간절함, 행복과 기쁨이 녹아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 또한 일상의 삶의 자리이며 소중한 시간임을 자각하는 시간으로 사별가족 만남의 날까지 진행, 사진전이 끝난 후에는 가족들에게 사진을 선물하여 소중한 추억의 산물이 되었다.

▶사별가족 만남의 날



10월 30일 지난해 장기모임 이후의 가족들을 초대하는 모임으로 올해는 사별가족 47분이 참석하였다. 사별가족과 팀원, 자원봉사자, 병원관계자들이 위로와 격려의 시간을 마련하였으며 추모 미사와 뷔페 식사, 공연 프로그램을 통해 가신 분들과 기도 안에서 함께 하는 추억을 공유하며 남아 있는 가족들은 현재의 자리에서 행복을 기원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다.

▶자원봉사자 연말 총회 및 아가페

12월 17일 이미 우리 가까이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을 생각하며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환자와 함께한 봉사의 시간을 미사로 봉헌하며 각자의 자리를 돌아보고 서로 격려하는 시간을 마련하였다.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서울성모병원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 30주년



10월 4일 서울성모병원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의 설립 30주년을 맞이해 축하하는 기념식과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진료, 교육과 연구, 자선과 봉사, 리더십과 경쟁력을 주제로 한 학술세미나로 진행되었으며 30주년 기념 책자 등의 책 발간을 기념하는 출판기념식과 호스피스 완화의료의 활동과 발자취를 담은 사진전도 함께 마련되었다. 또한 그동안 함께했던 직원, 봉사자, 병원관계자, 호스피스 전문기관에 종사하는 관계자들이 함께 모여 저녁 만찬 나눔 시간이 진행되었으며 축하와 격려, 화합하는 시간이 되었다.

▶하반기 사별 가족 모임



11월 1일 위령 성일을 맞이하여 직전 6개월간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에서 사별한 가족들을 대상으로 사별 가족의 슬픔과 고통을 나눌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슬픔 과정 극복을 원조함으로써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돕기 위한 하반기 사별 가족 모임을 개최하였다. 총 41명의 가족이 참여하여 나눔을 통하여 고인을 애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사별에 대한 가족 간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면서 위로의 시간을 가졌다.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 봉사자 정년 퇴임식



11월 15일 호스피스 봉사자로써 올해 각 15년, 4년 8개월 동안 봉사해 온 이진숙, 최형균 봉사자의 정년퇴임식이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퇴임 봉사자 활동들의 동영상 감상과 그간의 호스피스에 기여한 바를 기리며 감사패와 기념 반지를 선물하였다. 호스피스완화의료병

동에서 환자와 가족들을 위하여 헌신과 사랑으로 봉사해 주신 마음에 모두 감사 인사를 전하며 동료 봉사자들과 사진을 찍으며 아쉬운 작별의 시간을 보냈다.

## 갈바리의원

### ▶ 천주교 춘천교구 80주년 공로패 수상



12월 1일 천주교 춘천교구 80주년 개막 미사에서 말기 암 환자를 비롯한 임종하는 이들을 위해 헌신한 기관으로 선정되어 공로패를 받았다. 많은 분의 헌신과 기여로 지금의 갈바리의원이 이곳에서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외롭고 힘든 분들을 섬길 수 있었다.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환자와 가족들이 행복한 공간으로 꾸며 나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 커피 향이 있는 행복한 갈바리 카페



한 달에 한 번 환자, 보호자, 직원들을 위한 커피 요법! 일명 '갈바리 카페'가 열린다. 함께 커피를 마시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니 모두가 가족 같고 함께 걸어가는 친구 같은 마음이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함께 나눌 수 있는 병동의 이웃들이 있기에 우리의 마음이 한결 가볍고 힘이 된다. 한 달에 한 번이라 더 소중한 시간으로 고대가 된다.

## 성가를로병원

### ▶ 추석맞이 송편 빚기

9월 19일 송편 만들기 초대에 자신 없고 쭈뼛거리던 모습들은 사라지고 누가 더 잘 만드는지 서로 모양을 비교하며 활짝 핀 웃음꽃들로 화기에애한 분위기에



행복한 모습이었다. 추석 명절의 풍요로움을 미리 만끽하며 각자의 추석에 대한 추억을 이야기하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송편을 빚었고, 환자분들께 사랑과 행복이 듬뿍 담긴 송편을 나눠드리며 기쁨을 공유하는 시간이었다.

### ▶ 웨어링의 찾아가는 토크 음악회 (일곱 번째 이야기)



10월 30일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마음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기 위한 웨어링의 찾아가는 토크 음악회.

클래식 선율의 악기 소리~ 그 자체로 마음의 정화, 힐링 된 느낌인데 가족들이 직접 쓴 사연을 들려줄 때는 눈물까지도 주체할 수 없이 흐르는 상황이 연출되기도... 웨어링의 찾아가는 토크 음악회는 마음 안에 잠재된 어둠을 새로운 빛으로 탈바꿈하는 시간이 되었다.

### ▶ 호스피스 완화의료 20주년 기념행사



11월 9일 본 병원 호스피스완화의료 20주년 기념식이 성심홀에서 개최되었다.

20주년 발자취를 돌아보는 동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목포가톨릭대학교 오경섭 교수 신부의 '연명의료에 대하여' 강의에 이어 기념 미사와 한춤, 판소리 공연으로 풍성하게 진행되었다.

## 성바로로 가정호스피스센터

### ▶ 사별 가족 모임 "뜨락 2기"

6월 2일~7월 21일 매주 토요일 8회에 걸쳐 센터에서 사별 가족 모임 "뜨락 2기"을 진행하였다. 추모 미사와



음악 테라피, 피규어 테라피, 미술 테라피, 고인과의 추억 나누기 등을 통해 사별의 아픔을 함께 나누며 위로와 지지를 받는 시간이었다.

▶ 자원봉사자와 1박 2일 피정



9월 15일~16일 자원봉사자들과 경기도 시흥시에 위치한 성 바오로 피정의 집에서 침묵 피정의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 위령미사



11월 9일 사별 가족들을 모시고 고인을 그리워하며 상실의 아픔을 서로 나누며 지지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또한 군중교구 화랑대 성당 정한시 신부님의 미사 집전으로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을 위로하는 위령미사를 봉헌하였다.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

▶ 제24회 일반인을 위한 호스피스 교육



8월 1일~3일 부천성모병원 대강당에서 총 86명이 수료하였다. 매년 100여 명의 수강생을 받으며, 호스피스에 대한 알림과 홍보 및 봉사자 양성의 시간으로 호스피스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통해 호스피스에 대한 인

식 전환의 시간이 되었다.

▶ 사별가족 추모제



11월 2일 부천성모병원 성 요셉관 5층 옴니버스에서 2018년 임종 환자 15가족들이 오셔서 고인에 대한 추모제를 가졌으며, 나눔을 통해 서로의 힘을 들어주는 위로의 시간이 되었다.

▶ 호스피스 '알고 가세요' 일일 찾집 홍보캠페인



11월 12일 부천성모병원 지하에서 일반인 및 외래 환자와 원내 교직원들에게 홍보캠페인을 하였다. 호스피스에 대한 홍보를 통해 호스피스에 대한 인식 전환의 시간이 되었다.

창원파티아병원

▶ 상반기 동고동락 모임



6월 15일 은혜병동에서 함께 했던 유가족들이 모여 마음나누기를 하며, 고인을 생각하기도 하고, 힐링 타임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였다. 유가족끼리 평상시 문자나 전화, 미팅을 통해 힘든 과정에 조언을 얻기도 하면서 모여서인지 분위기는 한층 부드러웠고, 언니, 누나, 동생이 되어 서로 위로의 장이 되면서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모습이 아름답다는 말이 옳은 듯하다. 도자기공예 활동들은 가족들에게 참 좋은 선택이었고, 어느 때보다 밝은 표정의 모습은 우리에게 기쁨으로 전해지는 것이기도 했다.

▶ 병원 바자회

10월 25일 병원 주최 바자회에 호스피스병동 환자와 가족이 참여하여 간단한 분식도 드시면서 담소도 나

누였다. 가족들은 필요한 물품도 사면서 즐거운 하루였다고 하였다.

▶ 호스피스 날 캠페인 실시



10월 26일 호스피스의 날 캠페인을 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는데 이번 캠페인은 낮은 연령대의 '죽음에 대한 올바른 교육이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 개선과 건강한 삶을 위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알리는 데 그 취지가 있다.

▶ 소진관리 다녀오다



10월 31일 직원과 자원봉사자가 함께 경주 주상절리에 리프래쉬를 위해 달려갔다.

가을의 절정에 시원한 바닷바람과 청명한 하늘의 기운이 어우러져 우리에게는 너무도 행복한 시간이었다. 함께했기에 즐거웠고, 팀원 모두 해맑은 표정에 더 감사한 시간이었다.

익산성모병원

▶ 교육

6월 23일 호스피스완화의료 기본간호에 대하여 자원봉사자 교육이 있었다. 11월 23일 병원 전 직원과 호스피스자원봉사자 대상으로 “호스피스 완화의료의 실재와 전인적 돌봄” 주제로 호스피스 완화의료 심화교육을 하였다.

▶ 소진프로그램



6월 28일, 10월 19일 선유도 구불 8길, 고군산 길을 팀원이 다녀왔다. 12월 6일 장태산 휴양림 메타세콰이어 길

을 거닐며 점심식사를 하고 영화 관람 후 저녁식사에서 서로 어려움을 감싸주고 환자들에게 더 따뜻한 동행자가 되어 주기를 다짐했다.

▶ 이벤트



10월 7일 환자 이○레님의 결혼식이 목사님의 주례로 50여 분의 축복 속에 양가 가족의 화해, 용서로서 믿음, 사랑, 희망을 이루어냈다. 11월 25일 고 송○근님의 막내아들 첫 영성체식을 못 보고 떠난 아빠를 대신하여 10살 된 아들에게 성모자상과 초를 선물하였더니 기뻐하였고 가족도 고마워하였다. 12월 10일 병동 어르신들의 합동 생신 잔치를 열어 깜짝 방문을 통해 케이크에 촛불 하나씩 밝혀 축하 노래를 불렀고 환자와 보호자 함께 기념촬영도 해드렸다.

▶ 호스피스완화의료 홍보



6월 15일 익산역 광장에서 팜플릿, 홍보물을 나누고 관심 있는 분들에게는 입원상담도 해드렸다. 10월 13일 모악산 입구에서 전북지역암센터 외 5개 기관이 모여 호스피스완화의료주간 홍보 캠페인을 하였다.

▶ 해바라기 병동 개원 2주년 기념 미사

9월 17일 환자, 가족, 직원, 봉사자 30여 분이 모여 김기곤 사제 주례로 개원 2주년 미사를 드리고 조출한다과 시간을 가졌다.

▶ 사별가족 모임



6월 16일 1차 4가족이 참석하여 추억 나무 만들기를 통해 고인과의 만남 그리고 이별을 회고 하였고, 2차는 10월 20일~ 12월 1일까지 5가족이

6회기에 걸쳐 모임을 가지면서 마지막 여행을 통해서 서로의 아픈 추억을 털고 새로운 시작으로 이끌어 가는 계기를 만들어 냈다.

##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 ▶ 추석맞이 송편 만들기



9월 20일 '추석맞이 송편 만들기' 행사를 하였다. 환자, 보호자, 팀원이 함께 송편을 빚고 담소를 나누며 풍성한 한가위를 맞이하는 시간을 가졌다.

### ▶ '우리가 있어, 음악이 있어 행복한 가을이야기' 옥상정원 가을음악회



10월 20일 완화의료병동 옥상정원에서 가을음악회를 진행하였다. 음악치료사 4명이 참여하여 음악공연과 꽃화분, 풍선을 이용하여 환자와 가족이 서로 사랑의 메시지를 담아 전달하는 마음 나누기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였다.

### ▶ 호스피스·완화의료 전문기관의 환자·가족 대상 우수한 교육자료 선정



10월 12일 국립암센터 중앙호스피스센터에서 주최한 호스피스·완화의료 전문기관의 환자·가족 대상 우수한 교육자료 공모전에 '말기 암 환자를 위한 푸드테라피 레시피 북'이 선정되어 수상하였다.

### ▶ 우수자원봉사자 시상

국립암센터에서 주관하는 호스피스 완화의료 우수자원봉사자 선정에 김미현(카타리나), 허연무(스콜라스티카)님이 수상했다.

### ▶ 전체 사별가족 모임



11월 24일 '2018 전체 사별가족 모임'을 진행하였다. 지난 1년 사이에 임종하신 환자의 가족 24명과 팀원, 자원봉사자 등 총 58명이 참여하여 추모 미사를 시작으로 촛불 봉헌, 원예치료사와 함께하는 '하바플라리움 만들기', 성악 및 클라리넷 공연 등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사별의 아픔을 나누며 서로에게 위로와 희망이 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 한국가톨릭호스피스협회

### ▶ 2018년 한국가톨릭호스피스협회 세미나 개최



9월 7일 가톨릭대학교 의생명산업연구원 대강당에서 <통합형 호스피스 운영의 실제>라는 주제로 호스피스 전문인 73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유형별 호스피스 운영 현황(중앙호스피스센터:박소정)과 가톨릭 호스피스기관의 네트워크 강화 전략(서울성모병원:Sr.라정란) 강의와 통합형 호스피스의 운영 사례를 대전성모병원(임원형/자문형), 모현센터의원(임원형/가정형), 서울성모병원(임원형/자문형/가정형)에서 발표하였다.

### ▶ 제3회, 4회 이사회 개최

7월 25일, 10월 30일 이사회를 개최하였다. 3회 이사회에서 세미나 주제(통합형 호스피스 운영의 실제)와 2019년 전국 호스피스 자원봉사자의 날 1박 2일 피정 날짜와 장소를 정하고 4회 이사회에서는 피정 프로그램과 협회 회비(기관, 개인) 등을 논의하였다.